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인천 서구(갑)

책자형 선거공보

함께 이야기하는,
함께 나누는,
함께 꿈꾸는,
서구!

8

인천 서구갑 무소속

김용섭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서구갑선거구

1. 인적사항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학력	경력
8	무소속	김용섭	남	1980.02.14. (40세)	주식회사 함께하는시소 대표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부 3학년 제적 (2001.03. ~ 2006.05.)	(전) 한국컴패션 대표비서 (전) 북한인권정보센터 모금기획팀장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산상황 (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18세이상 직계비속
56,243	92,724	△ 36,481	없음	없음	육군병장 (만기전역)	없음

3. 세금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분	납세액	체납내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계	76	없음	없음	없음
후보자	72	없음	없음	
배우자	4	없음	없음	
직계존속	없음	없음	없음	
직계비속	없음	없음	없음	

4. 소명서

--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는 기탁금 1,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소속 후보에게는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지역구 내 최소 300명의 유권자들에게 추천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는 평범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높게만 느껴졌던
첫 번째 장벽. 그런데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한 지 25일 만에 137명이 2,003만 원의 후원금을
모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단 3일 만에 서구갑 유권자 368명이 추천장에
서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겨우 갓 마흔을 넘긴 평범한 가장, '서구갑 무소속 8번 김용섭'에게
이렇게 짧은 시간,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함께 고민해 주며,
함께 꿈꿀 정치인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옳은 것만 보고, 생각하고, 행합니다.'

학창 시절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선생님들의 부당한 물리력에 맞섰고,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에게만 제공되던 여러 특혜들을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하게 제공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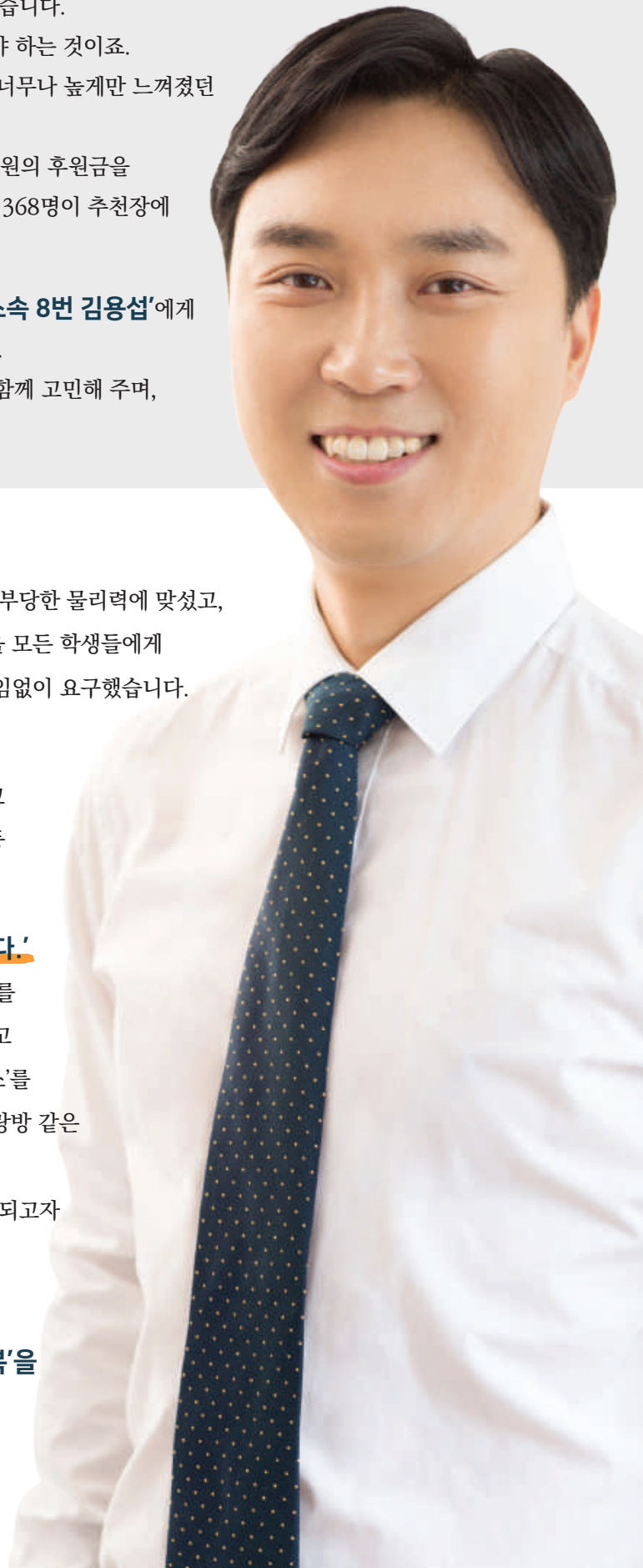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행동합니다.'

직장에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고
계약직을 포함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요청하는 등
늘 사람들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가정에게 소확행을 선물해 드리는게 목표입니다.'

청라살이 9년째. 수많은 아빠, 엄마들의 출퇴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선버스 업체의 고소 협박을 무릅쓰고
6년 동안 단 하루의 결행도 없이 '청라-강남 행복버스'를
운영하였고, 어른들의 마음 건강을 지켜드리고자 사랑방 같은
문화공간 '공책(공유하는책방)'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사교육 시장을 전전하는 아이들의 기댈 곳이 되고자
아이들이 언제든 와서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는
영어도서관 '나즈막한언덕'을 운영 중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작은 삶의 행복'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무소속으로 기성 정치에 도전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기성 정치인들이 높이 쌓은 그 벽을 넘는 것보다, 정치와 정치인을 혐오하면서도 매번 1번과 2번에게만 기회를 주는 우리들의 편견을 뛰어넘는 것이 훨씬 더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노란색 버스를 몇 번이나 타야 하는 아이들의 삶.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 한 채 살 수 있는 꿈조차 가질 수 없는 청년들의 삶.
돌이 채 지나지 않은 아이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야 하는 엄마들의 삶.
하루 3-4시간 통근하느라 가족들과 저녁식사를 꿈꿀 수 없는 아빠들의 삶.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가지면 우리 모두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더 이상 기성 정치인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절박함에 이 길에 도전합니다. 무소속이 무슨 힘이 있냐고요?

그럼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한 3선의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총장까지 지낸 그분들은 힘이 없어서 그동안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었나요?

그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유권자인 우리가 변해야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들이 우리들의 세금으로 그동안 누려온 수많은 특권과 특혜를 국민 앞에 내려놓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급 명예직이었다가 2005년 유급으로 전환된 기초의원들의 월급 또한 다시 무급으로 전환시킬 것입니다. 정당이나 기득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시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편에 서서 불의한 것들을 하나씩 바로잡아 나갈 것입니다.

무소속 8번 김용섭에게 기회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모두 변화를 원하면 4월 15일,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유권자인 우리가 변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8 인천 서구갑 **무소속**
김용섭

선거사무소.

인천 서구 청라라임로138번길 17, 102호 나즈막한언덕

T. (032)568-0214 F. (032)568-0215

www.김용섭.com

